

당뇨! 당뇨 근본 원인 기능 개선제
프로지 골드
 ■ 혈당 조절 (공복혈당, HbA1c)
 ■ 인슐린 분비 및 저항성 개선
PRO-Z USA (213)434-1170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예수 부활 하셨다”

부활절 새벽, 남가주기독교교회 연합회, 남가주 목사회, 엘에이 카운티교협 등 남가주 교계가 한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했다.

17일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에서 진행된 남가주 교계 연합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는 그동안의 남가주 교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며 교계 연합과 일치를 기대하게 했다. 또한 LA총영사관, LA 한인회, 민주 평통, 올림픽 경찰서장 등 사회 기관에서도 참여해 동포 사회 화합의 장을 열었다는 평가도 얻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 토드 스피처 오렌지카운티 검사장, 최석호 캘리포니아 주하원의원 등도 축하 영상으로 남가주 성도들과 부활의 기쁨을 함께 했다.

남가주 교계 기관들은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를 기점으로 교계의 결집과 부흥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부활절 새벽예배 상임대표로



주님의영광교회에서 진행된 2022 남가주 교계 연합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기독일보

섬긴 신승훈 목사는 “코로나 시대를 마무리하는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를 남가주 교계와 이민 사회가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 남가주 교계가 함께 일하며, 말겨진 사명과 본문을 이루는 데 서로협력하며 나아가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준비위원장으로 부활절 새벽 예배를 준비한 지용덕 목사(남가주기독교교회연합회 증경회장)는 “남가주 교계가 하나 되어서 지역 사회와 동포들을 섬기고, 교계의 부흥과 화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활절을 맞게 되어 기쁘다”며 “남가주 교계

가 한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자”고 기뻐했다.

엘에이카운티교협 회장 강신권 목사는 “남가주 교계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마음으로 연합할 때, 교회와 이 민사회의 부흥이 함께 일어날 것

으로 믿는다”며 “교계의 단합된 섬김을 통해 교회가 세상에 희망의 빛을 전하자”고 했다.

부활절 새벽연합 예배는 김용준 목사(남가주기독교교회연합회 회장)의 사회로 진건호 목사(남가주 목사회 회장)의 기도에 이어 지용수 목사(한국양곡교회)가 “말씀하신 대로”(마28:1-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지용수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부활의 약속과 확신을 전하며, 거룩함을 힘써 이룰 것을 독려했다. 그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의 약속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며 “예수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함을 덧입어 살자”고 전했다.

이날 헌금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전달하기로 했으며, 이태환 목사(남가주한인원로목사회 증경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김동욱 기자

美 유권자 약 70% “동성애 옹호’ 디즈니와 결별할 것”

디즈니가 어린아이들을 의도적으로 동성애적인 콘텐츠에 노출시켜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대다수 미국인들이 디즈니와 결별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트라팔가그룹과 보수단체 ‘컨벤션 오브 스테이트 액션’은 4월 5일부터 8일까지 1,079명의 미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월드디즈니사가 플로리다주 ‘친권법’에 반대하며, 공개적으로 성소수자(LGBT) 행동주의를 수

용한 것”에 대한 입장을 설문조사했다.

친권법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아이들을 상대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관한 교육을 금지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57.2%)는 LGBT 행동주의 수용으로 인해 디즈니와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훨씬 낮아졌다”고, 11%는 “다소 낮아졌다”고 했다. 반면 6.1%는 “훨씬 높아졌다”고, 3.3%는 “다소 높아졌다”

고 했다.

정당별로 보면 공화당원의 경우 디즈니와의 관계를 끊고 싶다고 말할 가능성이 민주당원보다 높았다. 설문에 응한 공화당원의 3/4 이상(76%)은 “훨씬 낮아졌다”고, 9.3%는 “낮아졌다”고 했다. 공화당원의 3.5%는 “훨씬 높아졌다”, 10.3%는 “차이가 없다”고 했다.

무소속/기타를 선택한 응답자의 63.4%는 “훨씬 낮아졌다”고, 9.1%는 “다소 낮아졌다”고 했



‘꼬마 의사 맥스터핀스’ ©디즈니

다. 이들 중 “훨씬 높아졌다”는 6.9%, “다소 높아졌다”는 2.2%, “차이가 없다”는 18.3%였다.

민주당원은 공화당원과 무소속보다 디즈니의 LGBT 활동에 반대를 표명할 가능성이 훨씬 낮았으나, 설문에 응한 다수(48.2%)가 디즈니와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다소 낮아졌다”고 답했다. 오직 8%만이 “훨씬 높아졌다”고, 6.4%는 “다소 높아졌다”고 했다. “차이가 없다”는 37.4%였다.

강혜진 기자

미국 정착의 지름길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50만불 간접 투자이민 상담환영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학생비자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가족초청 이민업무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체류기간 연장
 • 지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213.251.5554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A, CA 90010 / Fax 213.251.8451

이제는 안심하지!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로터널 건너편)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다양한 빛이 되길 희망합니다
부동산법 /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 (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 기간 그 실력을 인정 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분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뱅크러시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프로그램 구성:

1년차 **설교** [Preaching]
 2년차 **영성 형성** [Spiritual Formation]
 3년차 **리더십** [Leadership]

교수진

클린턴 아놀드 교수 Dr. Clint E. Arnold
 도널드 스누키안 교수 Dr. Don Sunukjian
 존 코 교수 Dr. John Coe
 에디 변 교수 Dr. Eddie Byun

초청 강사진

줄리어스 김 Julius Kim
 김한요 목사 Bryan Kim
 강준민 목사 Choon-Min Kang
 권혁빈 목사 Hyuk Been Kwon
 권준 목사 James Kwon
 이규현 목사 Gyu Hyun Lee

- 신입생 모집 -

올해로 개교 114주년을 맞이한 바이올라 대학교 소속 탈봇신학교에서 2023년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을 새롭게 런칭합니다.

원서접수 2022년 11월 1일 마감

지원자격

- 정규 인가 받은 신학대학원에서 취득한 석사 학위 (신학석사ThM, 목회학석사MDiv, 문학석사MA)
- 졸업 평점평균 3.0 이상 (4.0 기준)
- 목회경력: 3년 이상의 목회 경험이 있는 자 (부목사 지원 가능)

수업기간

- 1년차: 2023년 5월 29일 - 6월 9일 (2주)
- 2년차: 2024년 5월 27일 - 6월 7일 (2주)
- 3년차: 2025년 6월 2일 - 6월 13일 (2주)

수업장소 미국 캘리포니아 탈봇신학교 캠퍼스

입학문의: * 한국어 상담 가능

전화: +1 (562) 903 4705 (미국)

웹사이트: <https://www.biola.edu/doctor-of-ministry-korean-track>

이메일: talbot.korean.dmin@biola.edu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OC교계 부활절 연합예배 “부활 신앙으로 오늘을 승리하자”

OC 기독교교회협의회, OC 목사회, OC 장로협의회, OC 기독교 전도회연합회, OC 여성 목사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2022년 오렌지카운티 부활절 새벽연합예배가 지난 17일,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업 목사)에서 진행됐다.

예배는 심상은 목사(O.C. 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의 사회로 박재만 목사(OC교협 부회장)의 기도 이어 신용 집사(OC 전도회연합회회장)가 성경 봉독을 했다. 이날 설교는 한기홍 목사(O.C. 교협 증경회장)가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11:25-2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한기홍 목사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은 분명히 살아나셨고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며 “예수 그리스도안에서는 모든 것



나침반교회에서 진행된 오렌지카운티 교계연합 부활절 새벽예배

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처럼, 주님은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오늘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자”고 전했다.

이날 부활절 예배 참석자들은 이호우 목사(OC교협 증경회장), 박상목 목사(OC교협 증경회장),

박용일 목사(O.C. 목사회 회장)의 인도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난민들의 영적 회복과 오렌지카운티 지역교회 영적 대각성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올해 부활절 새벽연합예배를 준비한 심상은 목사는 “오렌지카

운티 지역 교회와 성도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함께 선포하며 이 시대의 회복을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하길 바란다”며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삶으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천

국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한 인생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헌금은 우크라이나 난민 구제를 위해 현지 선교사들에게 전달하기로 했으며 신원규 목사(OC교협 이사장)의 축도로 마쳤다. 김동욱 기자

“미주한인이민교회 더 넓은 ‘우리’ 로 세상 향해 문 열어야”

“미주한인들의 중심에는 미주한인교회가 있었습니다. 한인 이민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민사회의 중심에서 한인 이민자들을 붙들어준 것 미주한인교회였습니다. 이제 미주한인교회는 한인사회와 한인이민자들을 넘어 타민족과 커뮤니티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풀러신학교 코리아센터(KSC)가 지난 6일부터 이틀 동안 ‘한인 이민교회의 정체성과 선교’란 주제로 진행한 심포지엄에서 보스턴 대학교 신학대 최희안 박사는 미주한인이민교회가 갖춰야 할 리더십과 사회적 역할을 ‘우리’라는 공동체 개념의 확장에서 찾았다.

“한인이민교회의 리더십 재구축”이란 주제로 발제한 최희안



풀러신학교가 주최한 “한인 이민교회의 정체성과 선교” 심포지엄에서 발제하는 보스턴 대학교 신학대 최희안 교수 ©기독교일보

박사는 그동안 미주한인이민교회가 이민사회의 중심에서 한인 이민자들을 돌보고 미국 사회와

의 가교 역할도 감당해 왔지만 이제는 한인이민자들을 위한 예배와 친교, 정보 교류의 장, 마음

풀러신학교 “한인 이민교회의 정체성과 선교” 심포지엄 개최 최희안 박사 “한인이민교회의 리더십 재구축” 주제로 발제

의 고향 같은 장소를 넘어 타인종 커뮤니티와 사회적 소외 그룹을 향해 교회의 문을 열고 더 크고 넓은 ‘우리’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주한인교회가 한인커뮤니티에만 국한된 ‘우리’가 아니라 더 넓은 의미의 ‘우리’를 형성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최 박사는 “미주 한인들이 미국 사회 전반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한인 2세들은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자유롭다. 미국에서 40-50년을 거주하신 한인 1세대도 김치와 함께 파스타를 즐겨먹는다”며 “이제 미주한인교

회는 한인들을 위한 ‘우리’에서 만 머물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과 커뮤니티, 여러 사회 계층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확장된 ‘우리’의 개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회는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끌어 안고 ‘우리’라는 개념 안에서 개인의 성향을 존중하면서도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복음과 세상을 연결하면서 소외된 이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욱 기자

우크라이나 키르치 군종 목사, 월드쉐어 USA 통해 감사 인사 전해

월드쉐어 USA(대표 강태광 목사)가 후원하는 우크라이나 군종 목사인 키르치(Vasily Khimich) 소령이 남가주 교회와 성도 그리고 후원자들이 보낸 성금에 대한 감사 메시지를

전했다.

키르치 목사는 우크라이나 군종 목사단과 우크라이나 기독교 군인회를 대표하는 우크라이나 지도자로,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이우에서 전쟁 난민과 참전중인 우크라이나 군종 목사 및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역에서는 현역 군종 목사들이 부대와 난

민촌에서 전쟁희생자들을 돕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키르치 목사는 한인교회와 성도들, 미주 한인사회가 어려움에 처한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보여준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우크라이나를 위한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을 요청했다.

그는 이어 한국을 몇 번 방문한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6.25 전쟁을 극복한 대한

민국을 본받고 싶다”며 “우크라이나가 복음으로 충만해져서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에 전파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전했다.

강태광 목사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기도하고 난민들이 안전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며 “남가주에서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 운

동을 전개했으며 수차례 송금을 마쳤다”고 밝혔다.

강 목사는 이어 “키르치 소령이 보내 온 감사 동영상을 수십 번 듣고 보았다. 그들의 처연한 심정이 전해져 눈물이 절로 났다”며 “남가주 교회들과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 형제 자매들에게 대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호소했다.

후원문의 323)578-7933 김동욱 기자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2년 가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7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원격 수업도 지원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ASC Senior College and University Commission(WASCU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비전케어, 무료 시력검사 및 백내장 수술 진행

4월 30일 오전 9시, LA총영사관 주차장 무보험·저소득층 한인 대상 전문의가 직접 검사

국제의료구호단체 비전케어 미주서부(VCS West·이사장 고정원)가 무보험자 및 저소득층 한인들을 위해 오는 4월 30일(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LA총영사관 주차장(3243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에서 'LA 사랑의 아이캠프'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장을 방문하면 무료 안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진 결과 백내장 질환이 심각한 저소득층 또는 무보험자 한인에게는 무료로 백내장 수술을 제공한다. 모

든 방문자들은 행사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오픈뱅크와 LA총영사관에서 후원하는 이날 행사에는 조성진 안과전문의, 리사 황 안과전문의, 케빈 임 안과전문의가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직접 검사를 진행한다. 또한 제니퍼 김 검안의가 시력 검사를 맡는다.

비전케어 미주서부의 고정원 이사장은 "팬데믹 기간 동안 눈이 불편하셨던 분들을 위해 아이캠프를 마련했다"며 "안검사를 받고 싶은 한인들은 꼭 방문해서



비전케어서비스가 무료 눈 검사를 실시하는 모습 ©비전케어서비스 제공

검사를 받을 것"을 강조했다.

한편 비전케어 미주서부는 지

난 2012년부터 매년 한인 커뮤니티 내 무보험자와 저소득층 한인들을 위해 무료로 안검사 및 백내장 수술을 진행해왔다. 그동안 무료 안과 외래진료를 받은 한인은 700여명에 달하며 80여 명의 시각장애자들이 무료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비전케어 미주서부는 코로나 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과 2021년에도 온라인 아이캠프를 진행해 150여명의 한인 및 비한인에게 무료검사를 제공했으며, 10여 명의 한인 및 비한인에게 백내장 수술을 제공했다.

문의는 (213)215-3420 고정원 이사장 또는 (213)505-2552 홍연아 총무로 할 수 있다.

원하트 미니스트리 '심플 워십' 컴백

원하트워십 찬양집회

Simple Worship

포스트 코로나시대
남가주 지역의 새로운 예배를 세웁니다

04.30.22 Sat. 7pm
Dongshin Church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원하트미니스트리(이하 원하트)가 오는 30일(토) 저녁 7시, 남가주 동신교회에서 여섯번째 심플워십을 진행한다.

오는 30일(토) 저녁 7시, 남가주 동신교회

심플워십은 코로나로 지친 세대에게 예배의 같음을 채워주고자 시작했다.

또한 '준비하는 사람들은 힘들지만 하나님은 편하게 받으시는 예배'를 모티브로, 기존 예배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더욱 집중하길 소망하며 세워진 예배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접어드는 이 때에, 이제는 다함께 모여 기도하고, 다윗처럼 춤추며 찬양해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원하트는 지난 코로나 시즌 동안 남가주 지역을 넘어 미국과 전세계의 예배가 무너짐을 보며, 특별히 청년들이 교회와 예배를 떠나는 것에 대해 문화사역단체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안타까워했던 마음을 전했다.

찬양을 사모하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 4월 마지막주 드러질 심플워십을 통해 다시한번 남가주 지역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세워지기를 기대해본다.

예장(백석) 미주서부노회 신임 노회장 하태신 목사 선출



예장(백석) 미주서부노회 신임 노회장 하태신 목사 ©기독교일보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미주서부노회는 지난 18일, 브림교회(담임 윤혁 목사)에서 제55차 정기노회를 개최하고 신임 노회장으로 샌프란시스코 소재, 미주총신교회 담임인 하태신 목사를 선출했다.

신임 노회장 하태신 목사는 "지난 2년 동안 수고해 주신 윤혁 목사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맡겨주

신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며 "임기 동안 노회 내 모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돌보고 격려하며 노회 활성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 노회 임원으로서는 부노회장에 이형우 목사, 서기에 김장훈 목사, 회계에 허영란 목사, 회의록 서기에 이성태 목사, 부서기에 김해숙 목사를 선출했다.

김동욱 기자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Western Ave, LA, CA 90006

'굴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책의 추천자들:
이명희(서울대 명예교수), 조성환(고려대 명예교수), 이종희(고려대 명예교수), 송경원(서울대 명예교수), 권준호(서울대 명예교수), 신정민(서울대 명예교수), 유관석(서울대 명예교수), 김진호(서울대 명예교수)

박상원 목사 책의 편지자
\$20/권당 + \$5 우송료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굴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과 속편'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북한 간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하성도들의 순교종언으로 지역에서 전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과, 우리에겐 복음통일의 원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이다.
* 제과대당: GBMW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부해 드립니다.

기독교동행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 (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현)마동환 변호사 그룹 대표
(현)국제이바스 USA 이사장
(전)남가주 교외임의회 고문 변호사
(전)재미발명가 협회 고문 변호사
(전)중부상공회의소 이사장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변호**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 변호
- 실력** 문제의 핵심이슈 파악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적용
- 정성**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
- 책임**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 의뢰인과의 대화 청구 활착 열림
- 신뢰**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

상법 / 부동산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 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동환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관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지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뱅크럽시
뱅크럽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선통리 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모든 상담 절대 비밀 보장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 a x : 213.487.9484 marhlaw@yahoo.com
Main : 700 S. Flower St., #1000 LA, CA 90017
3435 Wilshire Blvd, #2700 LA., CA 90010

www.marhlaw.com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249

“지역교회들이 선교적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며”



이상훈 목사
주비전선교회 대표

필자는 몇주 전에 개척한 지 2년 된 교회의 담임목사를 만났다. 40대 초반의 목사님 인상이 참 좋았다. 평안한 느낌이고, 개척교회의 비전이 뚜렷하게 세워진 느낌이었다. 잠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선교적 교회로의 목회 비전이 세워져 있다는 마음이 들었다.

LA에 있는 대형교회에서 부목사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부부가 기도한 끝에 하나님의 콜링이 교회 개척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말 그대로 맨땅부터의 개척을 시도하였다고 했다. 마켓 앞에서, 근처 공원에서 전도지를 돌리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한 가정 두 가정 세워져서 지금은 20여명 성도가 생겼다고 했다. 그렇게 개척 사역의 어려움 중에서도 헌금의 일정 부분을 선교지 후원금으로 책정하여서 그해 5분의 선교사님들께 매달 정한 선교 후원비를 보내고 있다 했다. 5분의 선교사님들은 목사님이 전부터 알았던 분들이 아니라 교인들이 선교사 소식을 나누면서 소개 받은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후원처를 정했다고 했다.

필자도 30대부터 2번의 교회 개척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한 경험이 있어서 개척의 어려움을 알기에 그 목사님과의 대화 속에서 같이 공감하는 부분을 많이 나누게 되었다. 그 교회의 주보와 전도지 그리고 홈페이지를 보면서 목사님이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세우겠다는 마음을 알게 되어 더욱 귀한 분이라 생각하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도 깊이 기도로 블레싱 하고픈 마음이 들었다.

필자는 선교적 교회를 세워 나갈 때는 온 성도들 특히 교회의 리더십들을 더욱 신중히 세워야 하는 것과 그 리더십들과 처음부터 선교적 사명을 공유하며 교회를 세워 가야 할 것이라는 조언을 해드렸다. 그리고 건강한 전문 선교사 혹은 선교단체와의 연합 선교사역을 도모할 것도 조언하였다. 목사님은 받아드리고, 제가 사역했고, 계속 후원하고 있는 멕시코 신학교에 교회가 후원할 뜻을 말

하였다. 필자는 감사하며 우선 목사님과 선교 리더십들이 멕시코 신학교 현지를 방문하기를 권했고 목사님은 올여름 그렇게 하겠노라 답하였다.

선교적 교회로의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 제일 먼저 성령의 능력과 임재하심을 굳건히 따르겠다는 각오가 동반된다고 믿는다. 선교적 교회로의 사명은 더욱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선교적 교회는 역시 선교적 목표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그 목표 중 중요한 것이 성도들을 반드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훈련하는 것이다. 선교적 교회의 목회자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삶을 따르겠다는 철저한 헌신 된 리더십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마5:13-16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성도들이 수행해야 하는 필수 구절로 본다.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한 전제는 지상 대명령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선포한 목회자와 선교 리더십들의 동역이 확실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이다.

필자는 그 목사님과의 대화를 나누고 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요즘은 점점 교회 개척이 줄고, 교회 개척의 대부분은 성도들의 수평 이동에 지나지 않는 모습들이 많다. 이때 기도로 결단하고 가족부터 시작하여 전도 대상자를 찾아 전도하면서 시작하는 진짜 개척목사를 찾기 힘든 때에 신선한 개척 목회자를 만나서 감사하다고 기도드렸다. 이런 개척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선교를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선교적 교회로의 꿈을 갖는 목사님들이 많아지기를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한다.

강태광목사의 인문학 강의



인문학으로 읽는 예수님 생애 ⑦ “예수님 시대의 사마리아 연구”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환영 받을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와 사마리아인은 뜨거운 감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만나 기도하셨고 예수님의 비유에서 사마리아인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시키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를 찾습니다.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마리아 여인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차례 이혼의 경험이 있었고, 현재의 삶도 윤리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아닌 남자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일반 유대인이 갖고 있었던 사마리아인에 대한 반감이나 적대감을 갖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세겜을 중심으로 성전을 짓고 새로운 신앙 전통을 세웠습니다. 사마리아도 하나님을 섬겼으나 옛적부터 있었던 토착종교의 관습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서로 섞여서 유대인의 유일신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시작은 남북 왕조의 분리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유대와 분리되고 적대감이 발전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버금가는 성전을 세겜에 지었습니다. 사마리아 자체적인 예배를 발전시킴으로 좁혀질 수 없는 간격을 만들어 갔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 사마리아인을 향한 유대인의 마음은 요한복음 8장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책망하자 유대인

들이 예수님께 악담합니다. 8장 48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 하나냐”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귀신들린 사람을 동일시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경시하고 악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각색하여 비유 가운데 등장시키시는 것은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은 처음으로 구약(열왕기상)에 등장합니다. 북 왕국 이스라엘의 오므리(Omri)왕은 세겜성 북쪽 땅을 사서 사마리아 성을 세웁니다. 세멜(Shemer)이라는 사람에게서 산을 사서 성읍(fortified city)을 건설하고 산의 주인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 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가 북 왕국의 도읍이 되어서 B.C 332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함락될 때까지 사마리아는 북 이스라엘의 도읍 자리를 지킵니다.

도시 사마리아가 북 왕국의 이름이 됩니다(왕상13:32, 호8:5, 암3:9, 사9:9~12). 나아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 부릅니다. 앗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포로로 데리고 가고, 바벨론 등 여러 나라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사마리아

에 살게 합니다(왕하17:24). 사마리아에 사는 이방인을 하나님이 징벌하셔서 몇 사람이 죽습니다. 이를 알게 된 앗수르 왕은 사마리아에서 잡아 온 제사장들을 이방인 거주지로 보내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들은 산당을 짓고 자신들의 신을 섬깁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와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 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왕하17:33).”라고 사마리아인의 악한 모습이 묘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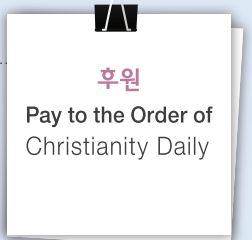
사마리아인들은 스스로를 사마리아인으로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를 때 사마리아는 히브리어 사마림 혹은 사마린에서 왔는데 이 말은 '진리를 지키는 자', 혹은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을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진리를 지킨 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구별되는 믿음의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둘째 하나님은 오직 한 예언자(모세)만을 허락하였고, 셋째 하나님 말씀은 모세 오경뿐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예배 장소는 오직 그리스심산이라고 믿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리스심산의 성전은 알렉산더 대왕 시절 예루살렘 성전을 모방하여 세웠다고 전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후예인 북 이스라엘은 악과 불순종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해 돌아갈 수 없는 사마리아인이 됩니다. 그들은 독선과 아집으로 선지서, 시가서와 역사서를 거부합니다. 점점 악화된 그들은 예수님 시대에 거의 이방인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들의 선한 점을 인정해 줍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김종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민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크랜트,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미국 정착의 지름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투자이민 상담환영

-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 지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 학생비자
- ▶ 가족초청 이민업무
- ▶ 체류기간 연장
- ▶ 시민권 취득
- ▶ 추방 재판
- ▶ 기타 전반 이민업무

www.davidlimlaw.com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213.251.5554**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 미드웨스턴 칼럼 ■

리더십 시리즈③ 리더십이 지도력?

우리 사회에서 '리더십'이란 외래어가 익숙해진 지 오래다. 이 용어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리더십 연구 전문가들의 고전적인 정의들부터 확인해 보자. Bennis(1959)는 "리더십이란 리더가 부하직원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Bass(1985)는 "리더십이란 부하직원으로써 하여금 변화를 가능케 하고 성취할 수 있는 목표를 품고 나아가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Hersey & Blanchard(1982)는 "리더십이란 주어진 상황에서 개인이나 집단으로 하여금 목표를 성취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Manz & Neck(2009)은 "리더십이란 영향력이 행사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용어 설명은 주로 경영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풀이된 것이다. 원래 이 단어는 영미권에서 'lead(인도하다. 안내하다. 이끌다)'에 사람을 지칭하는 접미사인 -er이 붙어 'leader'가 되었고 추가로 -ship이 붙어 'leadership'이 되었다. 여기서 ship이라는 파생 접미사는 문맥 상황에 따라 관계의 의미, 과정의 의미, 태도나 정신의 의미, 존재 성격의 의미를 추가하는 용도로 쓰인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이 리더십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사용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확정된 단어로 한역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리더십을 지도력으로 한역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문화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언어문화 이면에 자리하는 사회적 신분 문화와 관련이 있다는 말이다. 리더십의 한역 경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문화를 간략하게라도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 한글 자체는 표음문자에 해당 되지만 통용되는 한자어의 경우에는 표의문자의 특징

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번역과정에서 본의가 축소되거나 왜곡되는 경우는 빈번한 일이다. 원래 언어라는 것은 사용되는 지역의 고유문화 속에서 필요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어서 다른 문화권에서 조성된 단어 간에 완벽한 일치란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한국어는 영어처럼 한 단어의 뜻을 문맥에 따라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라, 문화배경을 담아내는 확정된 의미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형성되었다. 게다가 한국어는 보수적인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전통문화 보존력이 강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하면, 조선시대에는 유교문화가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분질서를 반영한 단어들도 풍부하게 생성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상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면서 리더(leader)라는 단어의 번역상의 문제부터 다루어 보자. 영어권에서 만들어진 리더라는 단어는 '인도자', '안내자', '이끄는 자'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단어를 주로 '지도자'로 번역해 오고 있다. 이것은 영어 단어의 본의를 정확히 반영하기 보다는 한국의 신분적 계급적 뉘앙스를 그 바탕에 깔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지도자라 하면 높은 지위를 가진 자가 그 아래 있는 부하들을 지휘하는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리더십을 지도력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영어권에서 통용되는 원래 의미와는 거리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 내 용어 사용에 있어서도 곤란한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다. 전술한대로, 접미사인 'ship'은 '관계', '과정', '태도', '존재' 등의 의미를 더 한다. 문제는 이 접미사를 힘력(力)으로 번역함으로써 의미상에 파워(권력)가 느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인데, 교계에서 이런 한역을 무시코 사용하면서 성경의

직분론을 왜곡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바꿔 말해, 교회의 직분은 역할론(기능론)의 입장에서 인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지위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게 되면서 교회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일종의 계급화 된 지위(신분)를 얻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향을 낳게 된 것이다.

성경의 '직분자'라는 용어는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지도자'란 개념 규정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지닌다. 신앙공동체의 리더와 일반 사회의 리더 간에 공유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둘 사이의 분명한 차이를 간과한 채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은 신앙공동체의 구성원 안에서 리더십을 적용하는 데 혼란을 주는 원인이 된다. 만일 신앙공동체인 교회가 세상의 지도자에 의해서 유지되거나 운영되는 조직의 수준에 머물게 된다면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왜곡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 교계에서는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한 교회를 지향하기는커녕 세상 조직과 유사한 기관을 만들어 세상 지도자를 빼닮은 목회자를 세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 구성원들 내에 교회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것임과 동시에 모델이 될 만한 신앙 공동체 및 신앙 리더의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신약성경의 여러 서신서들은 교회의 직분자를 신앙공동체의 리더격으로 설명하고 있고 이 직분자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분자에 대한 개념 이해가 일반 종교 지도자나 사회 지도자를 연상하는 정도라면 그것은 성경 가르침의 본질을 놓친 것이 되고 만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온전케 하여 그

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인도자들이다. 신약성경은 유대 종교 지도자와 성경의 직분자를 지칭하는 용어 사용에서부터 구별 짓는다. 헬라어 신약성경에는 지도자라는 의미를 담은 주요 단어가 3개 등장한다. 마태복음 2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고 하신 말씀이 나온다.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는 곧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는 단어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진정한 지도자이신 것이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는 'καθηγητής'라는 단어다. 이 단어의 의미는 '선생', '가이드' 혹은 '리더'라는 뜻이다.

그 외에도 신약에서 지도자라는 의미의 헬라어가 등장하는 곳을 찾아보면, 누가복음 14장 1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또 요한복음 3장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두 구절에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ἄρχων'이다. 이 단어는 '통치자', '관리' 혹은 '집권자'를 뜻한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는 '유대인들의' 라는 명사구와 결합되어 산헤드린의 멤버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헬라어는 누가복음 19장 47절에서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도자는 헬라어로 'πρωτος'의 복수형인 'πρωτοι'를 사용하고 있다. 이 단어는 원래 '첫째', ' 으뜸가는', '가장 중요한'을 뜻하는 형용사로 본 절에서 관사와 결합하여 '첫째가는, 으뜸가는, 가장 중요한 자들'이란 의미이다. 이렇듯 'ἄρχων'과 'πρωτος'는 세속사회의 통치자나 지도자를 대

상으로 사용되었다. 즉 상위계층적 부류를 상대로 하는 단어들이었다. 신약에서는 교회의 직분자를 지칭할 때 이러한 단어들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 이것은 교회 직분자와 유대교 종교 지도자의 차이를 분명히 전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듯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직분자는 일반적인 종교 지도자와도 분명한 차이를 지닌다. 성경의 직분(service, ministry)은, 세상에서 말하는 직위(position)가 아니라, 은사로부터 비롯된 섬김의 역할을 뜻한다. 한글 성경 번역과정에서 초기 번역자들이 '직위'나 '직급' 등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직분' 즉, '말려진 부분'이란 뜻의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매우 사려 깊은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몇 구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 구절은 미국대표주변역(NASB)에 "there are varieties of ministries"로 기록한 것처럼 대부분의 영역본들이 'ministry(사역)'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 고린도후서 3장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에서 '직분'(개역개정판, 개역한글판 동일함)에 해당되는 단어를 'ministry'로 기록하고 있다. (계속)



심민수 교수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34년간 사고방생시 연약우시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플러튼, 세리토스, 부에나파크, 싸이프러스, 라팔마, 엘바인 OC/LA전지역

알짜배기 매물만 소개합니다

믿음이 성공입니다! 뉴스타 34년을 믿으십시오. 주택/상가 매매상담 스페셜리스트, 모든지역/ 리스팅 전문

NEWSTAR Realty & Inv. **뉴스타부동산**
www.newstarrealty.com

2020년 100만 달러 이상

케를리
DRE 01968005 뉴스타부동산 명예부사장
Carole Lee Realtor
Cell 714.345.4989

미주 기독교일보 후원

한국 헤민병원

VIP종합검진 초특가 이벤트

“한국 방문 한번으로 보고싶은 가족과 친구도 만나고 건강도 잡으세요.”

검진내용

- ♣ CT 촬영(뇌, 폐 선택)
- ♣ 종양표지자 암검사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 ♣ 특수 초음파 검사 (질, 갑상선, 전립선, 유방(27세 이하) 하복부(간장, 비장, 췌장, 담낭, 신장))
- ♣ 수면 대장내시경
- ♣ 수면 위내시경
- ♣ 방사선 촬영(유방, 흉부)
- ♣ 골밀도
- ♣ 70개의 기본검사

검진비용

~~\$950~~ **\$350** (환율변동)

\$100불 할인예약증
\$250 검사당일 납부
쿠폰발행일로부터 5년 유효 (양도 양수가능)

새 생각, 새 의술 **헤민병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85 지하철 2호선 구의역 하차 4번 출구방향 으로 직진 신호등 건너 150m 도보
자세한 내용은 **213.341.5123**로 문의해 주세요.

윤석열 당선인 “한국교회, 코로나 위기 속 이웃 버팀목”

부활절연합예배 참석... 2부 행사서 축사 전해

4월 17일 오후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2022년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 1부 예배 후 '환영과 결단'의 2부에서는 준비위원장 엄진용 목사(기하성 총무) 사모로 대화사와 환영사, 축사 등이 진행됐다.

특히 이날 예배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윤 당선인은 “존경하는 한국교회 지도자와 성도 여러분, 2022년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며 “부활절을 맞아 한국교회가 한 자리에 모이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기도를 드릴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특히 교파를 초월해서 모두가 함께 모이는 자리라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뜻깊은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한국교회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어려운 이웃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사회의 아픔을 보듬고 따뜻한 공동체 형성에 앞장서 온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지금 우리는 수많은 위기와 도전 앞에 서 있다. 대내외 환경은 엄중하고, 저성장 양극화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닦는 데에도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우리 국민의 위대함이 함께한다면, 모든 어려움과 위기도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자기 희생과 헌신, 그리고 부활은 그리스도 정신의 요체”라며 “안내 책자에서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읽었다. 국정 운영을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풀어나가고,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길이 통합의 첫걸음이라 생각한다. 제게 맡기신 임무를 잘 새기



(앞줄 오른쪽부터 순서대로) 윤석열 당선인, 김기현 의원, 장제원 비서실장, 이영훈 목사 등이 예배드리고 있다. 뒷줄 맨 오른쪽은 오세훈 서울시장. ©여의도순복음교회

고 진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기도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는다. 부활의 기쁨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화사를 전한 대화장 이상문 목사(예성 총회장)는 “2022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한국교회가 한자리에 모였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하늘의 은혜가 임하

시길 기원한다”며 “우리는 지난 2019년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금까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동해안 지역 산불 피해로 재난에 처해 있는 이웃들도 있다. 이번 부활절을 기점으로 코로나의 긴 터널이 끝나고 전쟁의 포화가 멈추길 원한다고 기원했다.

이영훈 목사(기하성 대표총회

장)는 환영사에서 “지난 3년간 코로나19 사태로 한국교회는 많은 고난을 겪고 뜻하지 않은 여러 시련을 마주했다. 그럼에도 한국교회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냈고 이 어려운 시기를 끝내 이겨냈다”며 “이는 우리 한국교회가 뿌리내린 순교자의 신앙과 성도들 가슴에 살아 숨 쉬고 있는 부활신앙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대웅 기자

예장 합동 부총회장 선거, 오정호·한기승 목사 2파전

예장 합동 차기(제107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 레이스가 본격 시작됐다. 오정호 목사(새로남교회)와 한기승 목사(광주중앙교회, 이하 가나다 순)가 18일 각각 소속 노회인 서대전노회와 전남제일노회 정기회에서 후보로 추천받았다.

◆ 오정호 목사 “총신 신학 계승... 좋은 정책 개발·추진”

먼저 이날 대전 가수원교회에서 열린 제140회 노회 정기회에서 추천받은 오목사는 단에 올라 “그 동안 부족한 종이 새로남교회에 부임한 이후에 28년째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담임목사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격려하고 따라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열었다.

이어 “저는 총회가 필요로 하는 직분자가 되길 원한다. 총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총회의 요청에 의해서 총회를 위해, 총신을 위해 한국교회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목사로서 진심하고 정직하고 꿈을 가질 뿐 아니라 꿈을 확산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길 원한다”고 했다.

오목사는 “또한 총신의 신학 사상을 지켜내겠다”며 “평양신학교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신학사상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총신대학과 총회신학대학원은 한국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 지금까지 치열하게 달려 왔다. 이에 대해서는 그 신학적인 정통성을 계승할 것”이라고 했다.

◆ 한기승 목사 “목사·장로 1:1 구조인 장로회 정치 준수”

한기승 목사(가운데)가 18일 나주제일교회에서 열린 전남제일노회 제122회 정기회에서 예장 합동 제107회 부총회장 선거 후보로 추천받았다.

같은 날 전남 나주시 나주제일교회에서 열린 제122회 노회 정



오정호 목사(오른쪽)가 18일 대전 가수원교회에서 열린 서대전노회 제140회 정기회에서 예장 합동 제107회 부총회장 선거 후보로 추천받았다. 오목사 왼쪽은 노회장인 강제철 목사 ©서대전노회 제공

기회에서 추천받은 한기승 목사는 장로회 정치 원리에 대해 설명하며, 이를 충실히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목사는 “진리의 분별권이 누구에게 있으며 어떻게 시행되는가, 치리권이 누구에 의해 행사되는가, 교인의 기본권이 어

떻게 시행되는가에 따라 교회의 정치 형태를 교황 정치, 감독 정치, 자유 정치, 조합 정치, 장로회 정치로 구분한다”며 “우리 교단은 장로회 정치 원리를 따르는데 가장 기본이 대의정치원리와 개별성, 연합성, 평등성이다. 장로회 정치는 치리권을 가진 장

로와 치리권과 목양권을 가진 목사로 구성된 당회 체제이기에 목사와 장로가 1대1인 정치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런데 각 노회에서 실행위원을 1인씩 파송하게 돼 있기에 대부분 목사 한 명만 파송하고 있다”며 “이는 장로회 정치 원리에 맞지 않기에 우리 교회의 당회에서 실행위원을 노회당 목사, 장로 각 1명씩 파송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목사는 또 “우리 총회의 문제는 총회가 파회되면 총회장과 임원들이 장로회 정치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총회가 일임해 주지 않은 사안을 독단적으로 처리하며 교황 정치와 감독 정치 형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저는 장로회 정치 원리에 따라 총회장과 임원진에 일임해 준 것만 처리하며 월권과 독선을 하지 않겠다. 파회 이후 생겨난 모든 문제는 가급적 실행위원회에서 찬반 토론을 충분히 갖고 처리하겠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지하숙소복원과 복벽동족(어린이)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해주세요!

지난 여름 태풍으로 붕괴된 숙소 (10명의 고아들 거주) 복원과 동족들과 어린이들이 추운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감사절과 성탄절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힘이 될 것이고 복음통일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태풍피해를 가시기 위한 사업
... (text describing the project and the need for support)

3.1운동 100주년 기념 "1919유관순" 교회/단체관람(안내)



3.1운동 100주년과 유관순 서거100주년을 기념하고, 초대 교회와 성도들의 하나님사랑과 나라사랑을 감동은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커다란 울림과 사명을 준다. 주중 혹은 주말과 주일에 교회단체관람가능, 관람료는 관람후 자발적인 헌금 혹은 \$300 관람비로 합니다. 내년 3월 유관순 서거 100주년을 맞아, 유네스코에 역사인물로 등재가 됩니다 (관람신청은 아래연락처).

복음통일을 위한 동족선교구입(안내)



"고난의 대항군 때, 그 땅에 굶주림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목마름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술한 압제와 통제속에서도 성경을 알게되면서,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섭리를 깨달아 복음통일의 귀한 병기들로 세워져가고 있음이 이 책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_박상원 목사(편저자)_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20/권당+우송료\$5을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우송해드립니다)

기드온동족선교회는 매달 복벽의 동족어린이들에게 영양빵 3,000~5,000개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달 참여하여 도울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모아둔 동전들이 있다면 성탄절 전에 보내주세요. (참여방법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NOW OFFERING

IB PYP(K~5TH) • MYP(6TH~10TH)
DP(11TH~12TH)

100% UC대학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4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NCA 사립학교

NC



Now Enrolling

“이래서~ 믿을 수 있구나!”



-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를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 (타사립학교 대비)
-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 (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 12학년 평균 SAT 1,390점의 우수한 성적
- 11:1 학생 교사 비율로 효율적 온라인 교육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IB 프로그램이란?
전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
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입니다.

3119 W. 6th Street,
LA, CA 90020

213.487.5437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Est.1999

e-nca.org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daily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에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 245-661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례예)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3부예배(차세대예) 오전 11:30 오전 6:20(토)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일(수) 오후 7:3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민2세를 격려하며,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증진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den 코너)
T. (213) 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예배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 월-토

씨니킴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1:0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5 Crenshaw Blvd, #241, Torrance, CA 90505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hurch.com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19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아부 예배 오전 11:00
평어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운 믿어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 (토)

유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연 담임목사

새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화해가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성경강의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
라틴노 오후 6:3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설교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 설교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사랑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323) 897-5751
lordsl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틴노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시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친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경강의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성경공부 오후 7:00(토)
중보기도회 오전 10:30 금요일아침기도회(미) 오후 8:00
중보기도회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살아가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a@hnsa.org

글렌데일, LA 북부 지역

주일 1부 오전 9:00 JCOC Academy
주일 2부 오전 12:30 오전 10:15, 오후 12:40
EM 오전 11:15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사별부 오전 8: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고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 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여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F. (818) 882-9777 www.churchmannam.com

마이클 W. 스미스, 우크라이나 구호금 마련 위한 앨범 발표



마이클 W. 스미스 공연 모습. ©에이치스엔터테인먼트 제공

미국의 CCM 가수인 마이클 W. 스미스(Michael W. Smith)가 최근 우크라이나 구호 기금 마련을 위한 앨범을 발표했다.

그는 최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파괴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충격에 빠졌다”면서 “누군가 어떻게 그냥 들어가서 사람들을 살해하기 시작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은 내 마음을 놀라게 했다. 사진을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된다. 그것이 저를 움직인다. 많은 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결국 울게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선을 다했다. 위기의 한가운데 희망을 주기 위해 피아노를 치고 곡을 썼다. 그 결과 내쉬빌 레코딩 오케스트라와 함께 녹음한 새로운 기악 싱글 ‘Cry For Hope’가 탄생했다.

그는 “여태까지 써왔던 곡과 정말 다르다. 아마도 ‘윈들러 리스트’와 약간 비슷할 것”이라고 했다.

‘Cry For Hope’ 수익금 중 일부는 우크라이나 구호에 사용된다.

마이클 W. 스미스는 “이 앨범으로

돈을 버는데 관심 없다”라고 했다. 그의 팀은 또한 폴란드 난민들에게 의료 및 구호를 제공하는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가 이끄는 인도주의 단체인 사마리안퍼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들이 보내는 보급품은 어마어마하다. 정말 놀랍다”고 말했다. 이어 “평생 알던 모든 것을 떠나야 하고 하룻밤 사이 난민캠프의 유아용 침대에서 자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미국인으로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상상해보라.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에게 일어났다”라고 말했다.

스미스에 따르면 ‘Cry For Hope’는 이미 우크라이나 지상군에 배포되었으며 압도적인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는 “음악을 통해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항상 그래왔다. 이 찬양이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해져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고 전쟁이 종식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美 텍사스 대형교회, 우크라 난민 이주 위해 100만 달러 전달



피난을 위해 기차를 타려는 우크라이나인들. ©사마리안퍼스

미국 텍사스의 한 대형교회가 동유럽 사역 파트너와 협력해 수백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달러스-포트워스 지역에 9개 캠퍼스를 갖고 있는 게이트웨이교회는 4백여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 이주를 도왔다.

게이트웨이교회 대변인 로렌스 스위스굿은 최근 CP와의 인터뷰에서 “전쟁 발발 이전 우크라이나에 위치한 여러 교회와의 관계 덕분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면서 “현재 수백 명의 난민을 더 이주시키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우크라이나와 유럽 전역의 이웃 국가에서 인도적 구호와 재배치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피난처, 음식, 물, 의료용품 및 수당은 일상용품 제공이 포함된다. 절박한 도움이 필요한 1천 가구와 개인을 집합적으로 돕기 위해 더 큰 교회와 파트

너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전했다.

게이트웨이교회는 또한 재정 지원을 위해 봉사 예산에서 약 50만 달러를 충당했다. 또 게이트웨이교회 교인들은 최근 52만 6천 달러를 헌금했다.

스위스굿 대변인은 “도움이 필요한 수천 명을 돕기 위해 총 1백만 달러 이상을 보냈다. 중요한 구호와 재배치 노력을 위해 계속해서 기금을 모금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CP와의 인터뷰에서 “게이트웨이의 노력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인들을 사랑하시고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독교인으로서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전쟁은 많은 사람들을 황폐화시켰지만, 우크라이나 국민의 정신과 희망을 짓밟지는 못했다”고 했다.

이미경 기자

프랭클린 그레함, 우크라이나에서 '예수 부활' 전례

자선단체 사마리안퍼스(Samaritan's Purse) 대표인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가 우크라이나에서 전한 부활절 설교에서 "부활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시각을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많은 이들이 죽고 약 1,100만 명의 난민이 발생 가운데, 그레함 목사는 우크라이나 북부 리우에서 부활절 설교를 전했다. 이날 설교는 미리 녹화된 영상을 폭스뉴스가 송출했으며, 우크라이나 인들로 구성된 성가대가 찬양을 맡았다.

그레함 목사는 "전 세계가 갈수록 폭력적이 되고 세속화되고 있다"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이들 중에는 정치인들과 교육자들도 많다. 그들은 재미를 주지만 믿지는 않는다. 부활절에 많은 이들이 계란, 토끼, 사탕 등으로 분장을 한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속하기 위해 치른 값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레함 목사는 "하나님께서 그 값을 치르셨고, 부활절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지으셨다. 또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그분은 첫 남자와 여자를 완벽한 동산에 두셨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는 어떤 죄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분은 인간에게 삶을 주길 원하셨지만 법도 갖고 계셨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다시피, 첫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선택했다. 그 결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전 인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기록돼 있다. 죄의 대가가 있는데 그 극심한 사망이다.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에서 오는 사망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 ©사마리안퍼스 제공

부터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다"고 했다.

그는 "성경은 '당신 스스로가 아닌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어떤 이도 스스로 자랑

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선행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레함 목사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그분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분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슴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해 주셨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레함 목사는 "이번 부활절에는 우크라이나의 많은 이들이 소망을 잃어 버렸을 수 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들도 많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분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자"고 권면했다.

그는 "그분은 부활하셨고,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이것은 지금까지 선포된 그 어떤 메시지보다 위대한 소식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다. 무덤은 비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분은 살아계신다. 그분은 당신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강조했다.

그레함 목사는 "이번 부활절에 우크라이나인들을 기억하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미 대형교회 목사

"갯세마네의 예수, 모든 불안 이해하는 분"



텍사스주 게이트웨이 교회 담임 지미 에반스 목사 ©YouTube

미국의 텍사스주 게이트웨이교회의 지미 에반스(Jimmy Evans) 목사가 기독교인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갯세마네의 예수를 생각하며, 그분께 간구하라고 전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지미 에반스 목사는 지난 10일 텍사스주 소재 펠로십교회의 그레이프바인 캠퍼스에 초빙을 받아 말씀을 전했다.

에반스는 설교에서 "두려움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라며 예수는 "마지막 때에 사람의 마음이 두려워하고, 지상에 임할 일들로 인해 낙심할 것이라고 말씀했다"라고 했다.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39-46절에서 그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가 머물렀던 갯세마네 동산에 주목했다.

그는 예수가 감람산에 오를 당시에 "십자가에서 일어날 일을 알기에 고통 가운데에 계셨다.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길에 인간이 경험한 어떤 것보다 더 큰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라며 "당신이 무엇이든 두려워한 경험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이해하신다"라고 말했다.

그는 예수께서 두려움을 허락한 첫 번째 이유가 "자신을 인간과 동일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필

요로 할 때,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분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은혜에 기초하는 것"이라며 "은혜는 하나님의 보좌를 통해 주어지는 값없는 은총이며, 기독교인들이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종교적이거나 걸치레를 꾸밀 필요가 없다. 당신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가졌으며, 그분은 당신과 솔직한 대화를 하길 원하신다"라며 "그러므로 당신이 어떤 일을 당할 때, 주님께 나아가 '주님, 이것이 제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저는 이렇게 느끼며, 이것이 제가 지금 겪는 일입니다'라고 말하라"고 권면했다.

에반스는 "기독교인에게 죽음은 없다. 우리 죽을 수가 없다. 우리의 몸은 언젠가 죽게 된다. 하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여기서 마지막 눈을 감으면 바로 천국에서 눈을 뜬다는 사실을 아는가?"라고 반문하며 "지상에서 마지막 숨을 들이마신 후, 곧바로 천국에서 첫 숨을 내쉰다. 이곳에서 감각이 둔해지면 그곳에서 되살아난다"라고 했다.

그는 사탄이 기독교인에게 주는 두려움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통제"라며 "두려움은 지옥에서 온 예언자적 혼이며, 하나님이 당신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해칠 것이라는 두려움에 근거해 당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다른 일을 하게 한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두려움에 근거한 모든 결정은 항상 후회하게 될 것이다. 내 인생에서 가장 나쁜 결정은 두려움에 기초한 것이었다. 믿음에 기초한 결정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권면했다.

김유진 기자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연구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EM 예배 (1부) 오전 9:00, EM 예배 (2부) 오전 11:00, 한여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11:30, KIM 청년부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OC 예배 주일 예배 오전 10:00, 화-토 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후 7:30, 금요성경연구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5:30(월-토) 오전 6:00

2331 W. Chagall Ave., Torrance, CA 90503
19514 Redd St., Northridge, CA 91321, 818583-9887

최혁 담임목사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사우스베이 지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유치부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신태섭 담임목사

가디나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 (310) 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후 7:00, 유초중부예배 오전 8:40

주일 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 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홍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송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주일학교 유/초/중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EM성경연구회 오후 1: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11:30, KIM 청년부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침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 1부 오전 7:45, 주일 2부 오전 9:45, 주일 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오렌지카운티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여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금요찬양 오후 7:30, 영아인양예배 오전 11:30, 영어찬양부 오전 9:30, 11:30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청년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 / www.dongshi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유, 초등부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벤틀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EM) 주일 9:00am, 2부예배(EM) 주일 11: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일 두번째 금),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청년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중보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제자성서 오전 9:30(금)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uumc.org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일요일 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15, 한여부 오후 1: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박신용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새우고 복음으로 다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매일 마지막 금요일), 청년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2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필립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일 오전 11:30, 금요성경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반교회 세계선교를 이루라자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hoon@hanmail.net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유럽 교회 지도자들, 부활절 맞아 러-우크라 휴전 촉구

양국 대통령에게 “평화와 존엄 속에 기념할 기회 달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약 2달간 계속되는 가운데, 부활절을 맞아 유럽의 교회 지도자들이 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주교회의 의장인 장 클로드 흘레리히 추기경과 유럽교회협의회 의장인 크리스티안 크리거 목사가 최근 4월 17일 자정부터 4월 24일(정교회 부활절) 자정까지 휴전을 요청했다.

교회 지도자들은 “휴전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기독교인들이 평화와 존엄 속에서 부활절을 기념하고 격정에서 놓여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앞으로

이러한 요청이 담긴 공동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앞으로 며칠 안으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기억하고 그분의 부활을 기념하게 될 것”이라며 “부활절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절기의 정점이자 신자들의 삶의 중심”이라고 했다.

이어 “양국 간의 전면적 휴전을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기독교인,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들에게 평화와 존엄 속에서 부활절을 기념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이러한 휴전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며, 전쟁에 참여했거나 영향을 받는 사랑하는 이들의 생사에 대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모습. ©사마리안퍼스 제공

한 걱정스러운 불확실성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준다”고 했다.

편지는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종려주일 예배 때 전했던 말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무기를 내려 놓으십시오! 부

활절 휴전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나 재정비하고 전투를 재개하기 위한 휴전이 아닌,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다소의 희생을 감수하여 진정한 협상을 통해 평화에 도달하기 위한 휴전입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가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최소 4만 명이 사망했고 1,100만 명이 피난민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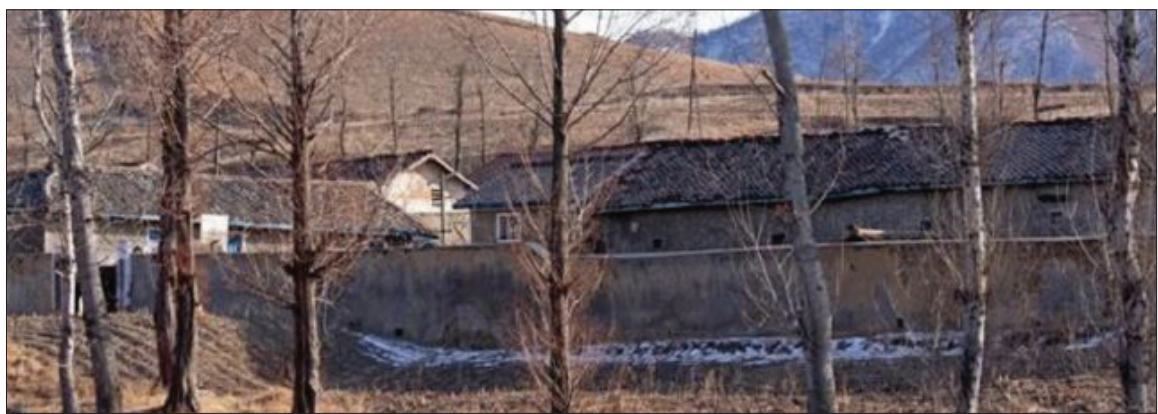
美 국무부 “北, 수많은 학대 처벌 안 해... 중대한 인권 문제”

미 국무부는 12일 발표한 ‘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사회안정성 등 치안 기구를 통한 효과적 통제를 유지했다”며 “수많은 학대를 했다는, 믿을 만한 보도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대 인권 문제는 다음의 믿을 만한 보도를 포함한다”며 정부에 의한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인 살해, 정부에 의한 강제적 실종, 정부 당국에 의한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고 모멸적인 대우 및 처벌 등을 예로 들었다.

보고서는 정치범수용소 등 가혹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수감 환경, 자의적 체포 및 구금, 정치범과 수감자, 다른 국가에서 개인에 대한 정치적 동기의 보복, 사법 독립 부재, 사생활에 대한 자의적 또는 불법적 간섭도 북한의 중대한 인권 문제로 거론했다.

또한 개인이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범죄에 대한 가족 구성원 처벌, 언론인에 대한 부당한 체포 및 기소와 검열, 인터넷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 평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실질적 간섭, 종교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 국내 이동 및 거주와 출



북한 국경 지역인 단동에 위치한 여성 정치범수용소의 모습. ©오픈도어즈 제공

국 권리에 대한 심각한 제한도 문제로 지적했다.

아울러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한 평화로운 정권 교체 불가능, 정치 참여에 대한 심각한 제한, 심각한 정부 부패,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조사와 책임 부족, 강제 낙태 및 강제 불임, 수술 등에 대한 상당한 접근 장벽, 인신매매, 독립 노조불법화, 최악의 아동 노동 등도 언급했다.

이 밖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특별 조사위원회의 보고를 인용, “코로나19 예방 조치로 북한이 여행을 제약해 외국인들의 체류를 제한하고 있으며, 탈북자들의 수도 감소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인권 침해와 부패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 것은 지

속적으로 광범위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에 구금됐다 풀려난 지 얼마 안 돼 숨진 워비어와 관련, “북한은 부당하게 구금됐다 2017년 석방 직후 숨진 워비어의 사망에 이르게 한 상황을 여전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리사 리퍼슨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 대행은 이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권위적인 국가 중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분명히 북한 정부가 자행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 보도를 깊이 우려하고 있다. 언젠가는 북한 주

민을 위한 정의가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피터슨 차관보 대행은 “우리는 인권 침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련 정보를 문서화해 보존하며,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 중”이라며 “특히 (인권) 학대와 침해에 연루된 이들을 제재하고 북한 내 인권에 대

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했다.

바이든 정부는 작년 12월 북한의 강제 노동과 인권 탄압을 이유로 북한 중앙검찰소와 사회안전성 출신 리영길 국방상 등을 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다.

피터슨 대행은 북한 내 인권 대선을 위해 어떤 방법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은 (우리가) 영향을 미치기 극도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북한 내 이슈를 둘러싼 인식을 제고하고 우리의 노력을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국무부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인권 이슈로 △형사상 명예훼손법 존재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정부의 부패 △여성 폭력에 대한 조사 및 책임 결여 △군대 내 동성애 불법화 법률 등을 꼽았다.

강혜진 기자

헤어 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신가요?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래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데저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원 우송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일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슈비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40부터 시작 \$20부터 시작

매직스트레이트 \$150부터 시작

*단, 칼라만 하시면 \$40부터 시작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를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컬러를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저희 미용실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소독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를 사전 예약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 금요일 10:00 AM ~ 8:00 PM 토요일 09:00 AM ~ 8:00 PM
Tel: 213-739-1022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예수님의 여리고 방문목적

누가복음 19:1-10



서울성교회 목사 장재효

1.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께서 제자들과 전도 여행 다니실 때 누가복음 18:18 이하에 돈 많은 어떤 관원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하는 질문에 “계명을 지키라”하시니 자기는 어려서부터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이 관원은 계명을 다 지켰으나 영생의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시며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하십니다. 그 사람이 부자이고 물질 기대심 때문에 근심하며 떠났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8:35 이하에는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 소경이 구걸하다가 무리의 지남을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붙잡히 여겨달라”고 외치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를 데려오라 하시고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시니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했을 때 예수께서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좇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 하나라 했습니다.

이상의 두 사람 중 부자 관원은 예수님을 만나 영생활 수 있는 방법을 지시 받았음에도 돈에 애착하여 스스로 멸망의 길을 떠났지만 소경 거지는 예수님의 존재와 사명과 능력을 믿음으로 구원 받은 것입니다.

2. 예수님을 구경하러 모여든 여리고 주민들

예수님의 공생애가 막바지로 접어드는 과정이라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에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에 여리고에 오신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모여 들었습니다. 그간 예수님께서 행하신 각종 기사와 이적을 통한 표적들의 소문에 호기심을 가지고 모여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아 보거나 믿어지게 하심을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인 삭개오는 로마 제국에 세금을 거두어 바치는 과정에 과다 징수하여 자기 몫을 챙겨치부했기 때문에 주민들에 증오(憎惡)의 대상이었고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죄인이었으나 그 역시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소문을 들어온 터라 예수님을 만나 뵈고 싶어 거리로 나왔으나 그는 키가 작아서 이미 예수님 주변을 겹겹이 둘러선 무

리들 때문에 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 뵈기를 쉽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행렬의 방향을 살펴 보다가 가시는 쪽 길가에 서있는 뽕나무 가지로 올라가서 그 아래로 지나가실 예수님 뵈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니 말고 뽕나무에 올라있는 삭개오를 쳐다 보시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하셨습니다. 이때 삭개오는 생면부지초면(生面不知初面)에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의 이름을 부르실까? 그 때 삭개오는 예수님의 신성(神性)에 감동(感動)되었고 더욱이 자기 집에 유(留)하시겠다는 말씀에 서둘러 내려가서 예수님 앞서 자기 집으로 모셔 가는데 못사람이 수군거리기를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하면서 삭개오를 멸시 폄하 하면서 예수님까지 같은 류(類)로 취급하는 듯 했습니다.

3. 삭개오의 철저한 회개와 구원

고린도전서 12:3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중략)...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하셨으니 삭개오는 하나님의 영감(靈感)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아보게 해주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 들이기 바쁘게 철저한 회개의 모습을 보이는데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뉘것을 토색(討索)한 것(역지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했습니다. 민수기 5:7에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오분지 일(20%)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 줄 것이라고 하셨는데 삭개오는 자기에게 피해 입은 사람에게 4배(400%)로 갚겠다 한 것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여 온전히 용서 받기 원하는 간절한 에다 그 많은 재산(財産)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선언도 삭개오 자신이 지금까지 도적으로 살아온 것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 받아 구원얻기 위한 간절한 회개의 모습이었습니다.

율법에는 도적질한 것에 20%만 더 계산해서 갚으면 그 죄를 용서받게 된다고 했으나 400%를 갚겠다고 했으니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지난날의 죄책감에 후회와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하심으로 그

토록 철저했던 삭개오의 회개는 도적질한 죄도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심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칭하는 것입니다(롬4:16).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10절에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하셨으니 그날 예수님의 여리고 방문 목적이 삭개오를 구원하실 계획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삭개오는 회개시 선언한대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토색한 것은 네 배로 갚았으며 돈 방식으로 알았던 여리고 세리장직을 즉시 버렸습니다. 성경사전에 의하면 남은 재산을 정리하여 가이사라 지방으로 가서 그곳 감독과 교회를 지극 정성으로 섬기며 전도와 선교를 위해 구제와 봉사를 힘썼기에 주님께서 삭개오를 가이사라 교회의 감독으로 세워 탐욕에 이성을 잃고 도적질하는 괴수같았던 그가 회개한 후 영적 가치관이 예수님과 일치하는 신앙생활로 교회 지도자의 자격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삭개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는데도 전혀 알지 못한 채 육신의 본능 따라 세속적 허욕을 채우려 죄악을 일삼고 있었으나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 알아보게 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영원한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영생복락을 누리고 싶어 오로지 영적 소망과 성과를 위하여 희생적 헌신과 봉사로 구령성공을 위해 감독으로 목회자로 성직자로 요긴히 쓰임 받았습다.

삭개오와 같이 회개의 열매도, 중생(重

生)의 변화도, 내세(來世) 소망을 위한 섬김의 열매도 확실해질 때 주님께서 크고 요긴하게 사용하십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구원 얻기 위한 목적보다는 교회당이나 구경하러 또는 예배드리는 모습을 구경삼아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업상 누구를 만나는 장소로 드나드는 사람들도 있는데 교회 밖의 시각에서는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통칭 교인들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3:15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중략)...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 하셨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진리 정통한 말씀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권능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다양한 은사(恩賜)와 영력(靈力)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믿어지게 하심으로 삭개오와 같이 지금까지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함 받고 성령님의 인치시고 인도하심 따라 삶의 목적은 영적성과(靈的成果)와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과 임마누엘을 위한 기도생활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언.행(思,言,行)이 확실히 거듭난 삶의 모습으로 바뀌었어야 할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성령에 사로잡혀 선교를 위해 복음의 제물 되어 한 평생을 희생적 헌신으로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훗날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국 방송 설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국 방송 설교		라 디 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미국 신문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기독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2022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례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대학의 최첨단시설(M.D.A) 신학박사, 석사학위,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116281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 CA 90247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1-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속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증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취급번호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8T: (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요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si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laurahelio@gmail.com
전화 1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Global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말씀과 헌정이 만나는 역동적인 교육
글로벌 시대에 맞는 글로벌 교수진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540 E. Vine Ave., West Covina, CA 91790
626.653.9547 EXT.#112
admin.kor@itsla.edu www.itsla.edu

■ 강준민 칼럼

부활의 승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승리는 영광스런 승리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승리입니다. 전 인류가 기다렸던 승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영원히 복되게 하는 승리입니다. 부활의 승리는 어떤 승리일까요?

첫째, 부활의 승리는 죄악을 멸하신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마 1:21).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요일 3:5). 인생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심판과 저주와 정죄와 진노가 임했습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죄를 사하고, 죄를 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를 멸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풍성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요 10:10).

둘째, 부활의 승리는 사단의 일을 멸하신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범죄케 한 뱀에게 장차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창 3:15).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옛 뱀 즉, 사단의 머리를 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친 것처럼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요일 3:8). 예수님은 부활의 승리를 통해 죽기를 무서워하여 죄와 마귀의 종노릇 하던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히 2:14-15).

셋째, 부활의 승리는 사망을 멸하신 승리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입니다(롬 6:23). 우리를 일평생 두렵게 만드는 것은 사망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사망을 사망시키셨습니다. 바울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말합니다(고전 15:26). 바울은 사망을 향하여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전 15:55). 사망을 향해 외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부활장의 결론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을 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고전 15:57-58).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요 5:24). 예수님의

승리로 분리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었습니다.

넷째, 부활의 승리는 사랑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죄인들을 위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가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고후 5:21). 그리하십시오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에 처할 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 8:35, 39). 우리의 승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롬 8:37).

다섯째, 부활의 승리는 성령님의 능력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은 성령님의 능력입니다(롬 8:11). 성령님의 능력은 살리는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새 역사를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인류 역사는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마귀의 능력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능력입니다. 반면에 성령님의 능력은 생명을 공급하고 살리고 풍성케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안에는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합니다. 우리 육의 생각과 육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영의 생각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롬 8:6).

예수님은 영원한 승리자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승리의 유전자가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자로 살아 가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연재 ‘삶의 질보다 더 큰 목마름’



기드온동죽선교
박상원 목사

그런데 문제는 양식이었다. 도적질을 그만두고 나니 뭐라

도 얻어먹을 요량으로 찾아오는 동료들을 물리치기가 참 딱했다. 나중에는 콩나물처럼 뻣뻣 말라서 걸어 다니는 것이 더 신기한 그의 아내들이 와서 곡식을 달라고 할 때는 정말이지 주저앉아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내가 무슨 하늘나라의 창고지기라도 되는가? 밭에 뿌려야 할 종자를 그들에게 다 나눠 주고 나면 농사는 어떻게 짓겠는가? 그들에게 주는 종자 역시 나라의 것이니 이것 역시 도적질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렇게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다 나는 작업반의 농사일을 기술지도원에게 맡기고 자재를 구입하러 간다고 속이고는 다시 도적질에 나섰다. 선수가 휴식을 취한 후면 원기가 회복되어 경기를 더 잘할 수 있듯이, 몇 달 동안 휴식을 취하고 나니 원기가 회복돼서 이전보다 더 왕성하게 전국을 떠돌며 돈이 될 만한 물건을 도적질했다.

공산 마귀가 도적질한 하나님의 소유를 찾겠다고 전국을 다니며 도적질을 일삼다가 돌아왔을 때 나를 기다린 것은 체포

령이었다. 이유는 도적질이 아니라 다른 데 있었다. 주체 농업에 근거한 통감자 재배를 하라는 노동당의 농업 정책에 전면으로 도전하여 감자 눈을 따서 씨 불임한 일이 죄가 된 것이다. 나는 간신히 동료의 도움을 받아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농장을 도망쳤다. 이렇게 시작된 도피 생활은 나를 직업적인 도적놈으로 더욱 깊숙이 몰아넣었다.

그즈음 나는 어쩌면 악마의 화신이었던지도 모른다. 나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하나님

의 말씀도 내 마음대로 왜곡해서 해석했다.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살인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했고, ‘도적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자녀들 간에 도적질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해 버렸다. 그리고는 전도한답시고 길을 나서며 단검을 몸에 지니고 다녔다. 만일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했는데 싫다고 말하면 단검으로 찌러 죽이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내 마음대로 확신했기 때문이다. (계속)

YouTube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기독교정보
기독교일보 유튜브

"CDTV 미주기독교일보"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미주 기독교일보 유튜브 토크
신문 GO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
남녀맞춤/명품웃수선

975 S. Vermont Ave. #102, LA,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NEW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뉴 프로지골드 출시!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Gold PRO-Z
Premium formulation

오래 기다리셨던 **아연보충성분 프로-지골드** 드디어 출시! 아연, 크롬 주성분에 홍화씨유와 달맞이꽃 증추출물(PGG)이 추가된 PRO-Z Gold

100% 정품
100% 만족도

Glucose Control
Clinically proven ingredients used to stimulate glucose metabolism
60 capsules
Made in U.S.A.

▶ 혈당조절! ▶ 면역기능! ▶ 세포분열!

1 **혈당, 정상적인 면역기능 때문에 고민이라면?**
프로-지 골드가 실의 활력을 찾아드립니다! 프로지 골드의 주성분 아연, 미네랄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에도 도움을 줍니다.

2 **산화아연이 아닙니다!**
체내 흡수율이 높은 글루콘산아연(zinc gluconate)이 들어 있습니다.

식후 혈당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프로지 골드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될 때 발생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방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 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 약들은 천연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 부종, 신장 부종, 간 독성과 방광염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많은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도 드러났습니다. 근육세포의 당 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의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39~43 미국 특허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커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하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 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이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신 합성 물질 ‘프로지’는 동물성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에 칼레이트 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별 행사 SALE

프로지 3병 구입시
1병 Free
\$237 + Tax

김인수 목사의 한국교회사

신사참배를 거절한 사람들

신사참배를 총회가 결정하고 나자 대부분의 교직자들은 아마도 마음속으로는 원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현실을 수용하고 신사참배에 동참하였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한 부당성을 외치며 조직적으로 반대운동에 나선 이들도 적지 않았다.

그중에 몇몇 주요 인사들의 면모를 보면, 평북의 이기선(李基善) 목사, 평양의 채정민(蔡廷敏) 목사, 이주원(李柱元) 전도사, 경남의 한상동(韓尙東) 목사 등의 교역자들이 중심이 되어 투쟁을 감행하였다. 이기선 목사는 신사참배 안이 가결되자 8년 동안 시무하던 의주 북하동교회를 사임하고 1939년 4월 평양 채정민 목사와 함께 동지 규합을 위해 전국을 순회하였다.

1940년 3월 중순경 이기선, 오영은, 박의흠, 계성수, 김성심, 김형각, 김창인, 김화준, 심을철 등은 다음의 신사불참배운동의 기본 방안을 확정하였다.

1. 신사참배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지 말 것
2. 신사불참배운동을 일으켜서 현실 교회를 약체화 내지 해체시킬 것
3. 신사불참배 신도들을 규합하여 가정예배를 가지며 이를 육성하여 교회를 신설할 것

이에 발맞추어 경남에서는 한상동 목사를 중심으로 주남선,

최상립, 최덕지, 손명복, 조수옥 등 여러 교직자들이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전개하면서 다음의 투쟁 방안 등을 계획하였다.

1. 현 노회 해체운동
 2. 신사참배 목사의 세례, 수찬(受餐) 불응
 3. 신사불참배주의자들로 새 노회 조직
 4. 신사불참배주의자들의 상호 원조
 5. 그룹 예배 시행과 적극적 동지규합 한다.
- 한상동 목사는 주남선 목사, 최상립 목사, 최덕지 전도사, 주수옥 전도사 등과 더불어 신사불참배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려고 계획하였다. 다행히도 이 운동에 평양의 해밀톤(F.E.Hamilton)과 메스베리(D.R.Masbery) 선교사가 재정적 지원을 해주어 큰 도움이 되었다.

만주의 흥경(興京)에 거주하던 헌트(B.F.Hunt, 韓富善) 선교사는 만주 지방의 반대운동을 적극 지도하고, 신앙을 지키는 신자들을 방문하며 격려하였다. 비록 이 운동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목사들 중에서도 음성적으로 저력을 도와주는 이들이 또한 적지 않았다.

1940년 4월 주기철 목사가 일시 석방된 때를 기하여 한상동 목사는 평양에서 만주로부터 온 동지들과 만나, 채정민 목사 집



김인수 목사 전 민주장신대 총장

에서 신사불참배 동지 단합대회를 열고, 전국 불참배노회를 조직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일제가 이런 운동을 그대로 방치할 리 없었으니, 그해 7월에 주기철 목사를 위시하여 전국 신사불참배 동지 전원을 검속하여 투옥하고 말았다.

일제는 5년이나 지난 후인 1945년 5월 18일에 그들을 치안 유지법, 보안법 위반, 불경죄 등을 적용하여 판결을 내렸고 주기철 목사를 비롯하여 50여 명이 감옥에서 순교하였다. 아직도 순교자의 명단과 그 투쟁의 과정을 확실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하와이 진주만을 폭격하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한국에서 목숨까지 버리며 일하고 있던 선교사들을 간첩으로 몰아 투옥하고 고문까지 가하는 일을 서슴지 않다가 결국 모두 추방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함께 울고 웃던 신앙의 동지들이요 후원자들이었던 선교사들이 모두 추방되고 동료 교역자들 거리가 친일이라는 현실 타협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이 외로운 신앙의 지사들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쪽을 택한 하나님의 사 람들이었다.

신사참배 강요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시험대 위에 올려놓으신 일이었다. 한국에 복음이 전래된 지 두 세대가 지나는 동안 교회는 '근대 선교의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의 대 부흥을 일으켰다. 선교사들을 파송한 미국교회를 비롯해서 캐나다, 호주 기타 여러 나라의 교회들은 지금까지 많은 선교사들을 세계 각지에 파송하였지만, 한국처럼 단시간에 많은 신자들을 확보한 일이 없었음에 감탄하였다.

그러나 물량과 내적 성장은 큰 차이가 있었다. 외향적으로 몸을 컸지만, 내적인 성장은 정체되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성숙한 신앙이 되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몸은 자랐지만, 내적으로 성장을 하지 못한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 놀라운 양적 성장은 이루어졌지만, 거기에 따른 내적 신앙의 성장이 없었으므로 신사참배라는 감당키 어려운 시련이 왔을 때, 목사라는 사람들부터 힘없이 굴복하고 말았던 것이다.

기독교 신앙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내어 놓을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요청한다. 한국 기독교는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하였다. 고대 로마제국 시대 때, 무수한 이름 없는 신자들이 스스로없이 십자가형에 처해졌고, 굶주린 맹수의 굴속에서 맹수의 밥이 되어 순교를 했으며, 불에 태워 죽이는 화형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 없이 사지(死地)로 나갔던 것은 성숙한 신앙을 가졌었기 때문이었다.

한국교회가 양적으로 많은 신자들이 있었지만, 신사참배 정도의 시련 앞에 무릎 꿇은 것은 아직 신앙의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한 때문이었다. 비록 숫자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지만, 주기철 목사를 비롯한 몇몇 순교자들의 거룩한 피로 한국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지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한국 성전의 불을 끄지 않으신 놀라운 은총이었다.

말하자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간 딸이 자기 조카가 유아세례를 받는다고 집에 왔습니다. 평소 언니를 그렇게 좋아하더니, 언니가 딸을 낳았을 때 조카를 안고 감격하며 울던 막내딸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 중에 세례식은 단연코 제일로 꼽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는 순간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기를 하나님께 맡기며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겠다는 부모의 결단과 가족의 결심이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10명이 넘는 아기의 유아세례 때도, 평소시대로 축복하며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손녀딸이 세례를 받는 순간에는 갑자기 양가 가

족이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열기가 느껴지면서, 그 짧은 순간에 주마등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영화 필름 돌아가듯 빛의 속도로 흘러갔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찬양 가사에도 있듯이, 그 순간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말로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철모르는 막내딸까지 먼 곳에서 기차 타고 와서 참여하는 유아세례식은 그래서 더할 나위 없는 감사와 기쁨의 현상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비교적 많은 부활 주일입니다. 지나가는 손님들도 있으시고, 특별히 지인들의 초청으로 방문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매년 부활절을 맞이할 때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마다 같은 마음이지만, 오늘은 더욱 새롭고 신선한 기대로 충만한 날입니다. 일주일 전, 우리

손녀딸이 세례를 받았을 때보다 더 큰 감동이 기대되는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손녀딸의 세례를 지켜보듯이, 오늘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천국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운동장을 가득 메운 것보다 더 많이 모여 축하하고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은혜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년 부활절에는 삶은 달걀을 선물로 나누며 먹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쁜 병아리가 태어나는 달걀을 상상하며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을 상징하는 달걀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 그와 같은 선물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

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조카의 유아 세례식에 참여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막내딸을 기차역으로 데려다주는 데, 듣고 싶은 음악이 있다며 자기 휴대폰을 자동차 안의 스테레오와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노래 한 곡을 틀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노래가 프랭크 시나트라 노래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대학생이 이런 오래된 음악을 듣나?" 물었더니,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서 옛날 음악을 듣는 것이 유행이라고 답합니다. 한편 기가 막히기도 하고 또 한편 신기하다는 생각도 들면서 기차역을 데려다주는데, "...in other words, I love you..." 가사가 들립니다. 오늘 방문하신 모든 분을 '사랑합니다!'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싸애틀, 달라스,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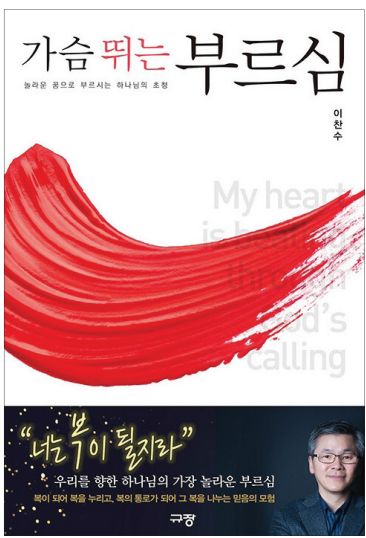
문의 1-877-580-2424 사무소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이찬수 목사 저서 <가슴 뛰는 부르심>

놀라운 꿈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



이찬수
규장(규장문화사) | 288쪽

생각 없이 사는 것도 문제지만,

생각을 너무 복잡하게 해서 한 걸음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무나 단순하게 반응했던 아브라함의 순종을 배워야 한다.

가슴 뛰는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으로 세우신다.

규장문화사가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의 신간 <가슴 뛰는 부르심>을 출간했다. 저자 이찬수 목사는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구약성경의 아브라함이 겪는 시련과 시험을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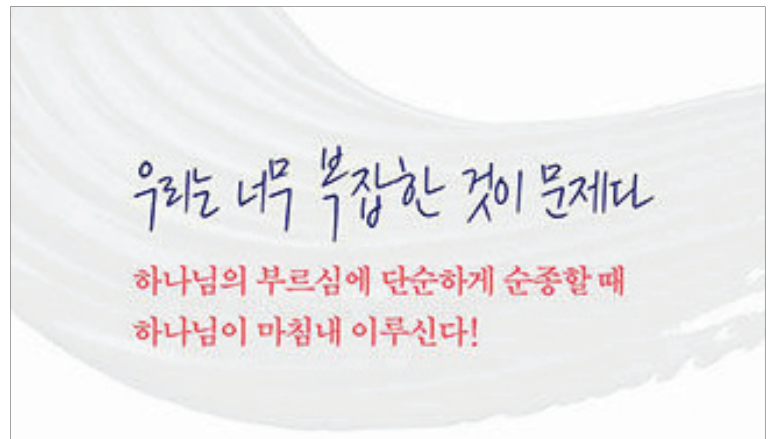
이 목사는 “뜬금없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명을 받은 아브라함. 이런 당황스러운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참 난감했겠다고 생각하는데, 내 눈에 확 들어오는 구절이 있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창 12:5) 아브라함의 복잡한 심경과 과정이 다 생략된 간단한 서술문을 읽으면서 나의 복잡한 머릿속도 정리되었다. 더군다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는 서술의 출발이 그 앞에 나오는 4절임을 알게 되었을 때, 내 머리가 쓸데없이 너무 복잡한 것이 문제였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했다.

그는 “‘떠나라’는 말씀 앞에 ‘복잡하지 않은 순종’과 그런 순종을 통해 얻은 ‘단순한 결과’였다. 내게 부여된 ‘일만성도 파송운동’이라는 큰 숙제도 이 공식대로 따르기로 했다. 그 이후에 전 교인과 함께 아브라함을 공

부하기 시작했다. 말씀을 준비하는 한 주 한 주가 내 삶에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지침의 말씀이었고, 순종할 때 허락해주시는 ‘마침내’의 기쁨의 시간이었다”라고 했다.

이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가라’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 우리들의 지금 목적지는 가나안이다. 그런데 도중에 엉뚱한 데로 샌다면,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데 하란에 머물며 거기서 허송세월하다가 인생을 끝내버린 역사가 데라의 족보이다. 이것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길 바란다. 그러므로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가 안주하던 그곳, 옛사람의 습관을 끊어버리는 능력이 지금부터 나타나게 될 줄로 믿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니 복달라고, 이제 편안한 길만 가게 해달라고, 실패가 없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은 뭘 모르는 것이다. 하나님과 폭우도 만나보고, 웅덩이에 빠져보기도 하고, 어떻게 견져주시는지도 경험해보는 이 모든 게 다 스토리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풀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자기 생각이나 계획대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방식



취했다더라면 아브라함에게 절대로 두려움이 엄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목사는 이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이탈하면 아무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 바로에게 꾸지람을 듣고, 그 앞에서 유구무언일 수밖에 없다.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 믿는 선장이 ‘기도도 안 하고 뭐 하느냐’라고 추궁할 때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수처에 빠지게 된다”라며 “아브라함은 이 대인관계 테스트에서 너무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총만함을 가지고 꼭 기억하고 이뤄야 하는 것이 대인관계에서 오는 시험들을 성숙함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아브라함이 비록 처음에는 미숙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과정적이고 지향적인 존재로서 목표를 향하여 또 성숙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이 그의 진면목이다. 또한 아브라함 내면에 불신이 싹튼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그 사실을 하나님께 토해놓은 것은 잘한 일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이 교정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깊이 돌아보고 생각해볼길 바란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흑암으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위하여 햇불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쫓겨간 짐승 사이를 지나시면서 ‘내 존재를 걸고 너에게 약속하마’라고 위로해준다. 믿음의 다른 말은 기다림이며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보잘것없는 한 인생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연히 하갈과 마주친 게 아

니다. 광야 샘물 곁에서 여호와와 사자가 하갈을 만났다고 할 때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온 마음을 기울여 만나주신 만남이었다”라고 했다.

끝으로 이 목사는 “수없이 많은 문제와 난관을 겪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머릿속은 너무 복잡하다. 복잡하게 생각하고 이것저것 따지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 복으로 살라고 부르시는 가슴 뛰는 부르심이기 때문”이라며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난 아브라함이 탄탄대로의 길을 걸어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가 겪는 시련과 시험을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게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품은 자는 연단과 시험을 통해 그 꿈에 걸맞은 자로 성장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지금 앞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고 두렵다면, 지금이야말로 나를 성장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목도할 때”라고 했다.

한편, 이찬수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했다. 현재 분당우리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하고 있으며 분당우리복지재단과 (재)가평우리마을을 설립해 이사장직을 겸임하고 있다. 저서로는 <감사>, <153 감사노트>,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산다는 것>,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오늘을 견뎌라>, <삶으로 증명하라> 등이 있다.

최승연 기자



가야 할 목적지를 잊고 화려한 하란에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너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창 12:1,2).

SWM 선교회 채용공고

애나하임에 위치한 SWM 선교회에서 함께 할 Full time 사무직을 모집합니다.

- 모집분야 : 재정 / 행정 담당
- 근무지 : Anaheim, CA
- 근무시간 : 월-금 (9am~6pm)
- 지원자격
 - 미국 내 합법적 취업이 가능하신 분으로 세금신고 가능하신 분
 - MS Office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등) 활용 가능자
 - 한국어와 영어로 이메일과 SNS 소통 가능한 분, 클릭 사용자 우대
- 제출서류 : 이력서, 신앙 간증, 추천서
- 지원마감 : 2022년 5월 10일
- 문의 및 접수 : general@swmnet.org (website : silkwavemission.com)

SWM 선교회

담임 목사 청빙

한빛 장로 교회는 California El Monte에 소재한 미국 장로교(PCUSA)에 소속된 47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가 정년 퇴임하시어 제3대 담임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자격

- 1) 학력 : 정규 신학대학원 (M.Div.이상) 졸업하신 분
- 2) 경력 : 담임 목사 또는 부목사 5년 이상 시무하신 분
- 3) 소속 : PCUSA소속이시거나 가입이 가능한 분
- 4) 언어 : 이중언어 (한국어, 영어 소통이 가능한 분)
- 5) 신분 :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 가능한 분

■제출서류

- 1) 이력서 (PCUSA Form PIF, 교단E-mail을 통해서, 또는 자필이력서)
- 2) 목사 안수 증명서 사본, 신학대학 졸업증명서 사본 각1통
- 3) 추천서 2통 (목사, 장로 추천서 각1통,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입)
- 4) 최근 (6개월) 설교 2회분 (동영상 file 또는 link)
- 5) 신앙 고백서 1부
- 6) 목회 계획서 1부
- 7) 본인 및 가족 소개서 (가족 사진 첨부)

■제출 마감일시: 2022년 5월 15일

■제출처

우편 : Divine Light Presbyterian Church(PNC)
11608 Valley BL, El Monte, CA 91732
E-mail: dlpcpcusa@gmail.com

■기타

- 1) 제출 서류는 보안에 유의하며 청빙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 2)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3) 문의는 E-mail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빛 장로 교회 청빙/위/원/회

박옥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메이의 새빨간 비밀> (上)

영화 <메이의 새빨간 비밀> 속, 중국의 영혼 이해

중국 전통 종교문화에 대한 서양의 호기심 잘 반영
서양인 관객들에게 호기심, 동양계에게는 공감을
주인공 레서판다의 영혼 내보내지 않고 받아들여
자연의 기운 받아들여 존재 지속 신선도 사상 반영

◆서양에 자리잡은 중국인: 보수
적인 중국식 가풍 속 서양 생활
<메이의 새빨간 비밀>은 지난
3월 OTT 서비스 업체 디즈니 플
러스가 단독으로 공개한 새 픽
사 애니메이션이다. 이 작품의
시간적 배경은 2002년, 공간적
배경은 캐나다 토론토로, 한 중
국계 가문 출신 소녀 메이가 주
인공으로 등장한다.

막 사춘기로 접어든 메이는 친
구들과의 친밀한 관계에 몰입하
고 이성애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넘쳐나는 활발한 소녀이다. 그러
나 그녀의 집안은 보수적인 중국
계 이민자 가문으로, 중국식 사
당(祠堂)을 운영하며 수입을 얻
는다. 집안에서 어머니 밍은 딸
메이와 함께 수시로 조상들에게
향을 올리며 제사를 드린다.
메이는 학업과 효도, 그리고
조상숭배를 강조하는 이런 보
수적인 중국식 가풍 속에서 자
유롭고 독립적인 성품의 소녀로
성장하기 위해 분투한다.

메이의 어머니 밍은 메이가 서
구 식의 자유분방하고 개인주의
적인 소녀로 성장하는 것이 못
마땅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
여, 메이의 행동을 자주 규제하
며 과잉 보호한다. 이것은 서구
사람들이 보는 전형적인 동양의
부모상이기도 하다.

서사의 본격적인 전개는 메이
가 빨간 털을 가진 커다란 레서
판다(Red panda)로 변하게 되
면서 시작된다. 이는 메이 가문 여
자들의 공통적인 특성인데, 크게
흥분하거나 분노해서 감정의 동

요를 억누르지 못하면 커다랗고
빨간 레서판다로 변하게 된다.
이 괴이한 현상은 메이 집안의
모계 쪽 선조가 레서판다의 혼
령을 몸에 받아들이며서부터 나
타난 일로 설명된다.

변신한 상태에서 인간의 모습
으로 돌아오려면 주술적인 봉인
의식을 행해야 하는데, 메이는
봉인 의식을 거부하고 레서판다
의 모습으로 친구들과 어울리고,
친구들은 그런 그녀를 환영하며
오히려 잘 어울린다. 이를 통해
메이는 본능과 감정에 충실한
레서판다 변신 상태를 스스로
통제하는 법을 배운다.

<메이의 새빨간 비밀>은 여러
모로 중국의 종교적·주술적 설
정이 가미되어 있다. 바로 이 점
이 서양인 관객들에게는 호기심
을, 동양계 혹은 동양인 관객들
에게는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이 애니메이션은 영미권에 거
주하는 동양계 가족의 정서를 훌
륭하게 표현했다는 평을 받았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확고한 상하
관계, 가족을 위해 개인의 바람
과 감정을 억누르는 가풍, 그리
고 가문 대대로 이어지는 전통에
의 복속 강요 등이 동양계 혹은
동양인 관객들 입장에서 현실적
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이다.

어린이 및 청소년을 주된 시청
자로 삼은 작품인 만큼, 분위기
는 시종일관 유쾌한 편이다. 특
히 메이가 집안 전통의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고하고 행
동하는 장면에서 더 그렇다. 하지
만 간혹 동양적 신비와 엄숙함



캐나다에 자리잡은 보수적인 중국계 가문 소녀의 사춘기 성장 이야기를 다룬 디즈니-픽사의 새 애니메이션, <메이의 새빨간 비밀>.

이 강조되는 지점들도 있다. 레
서 판다의 영혼을 봉인하는 의
식 중 메이의 정신 내면에 펼쳐
진 대나무숲 장면이 그러하다.

◆서양에 선보이는 중국 종교: 신
선도가 가르치는 인간과 기(氣)

사실 동양인들 입장에서는 별
로 새로울 것이 없지만, 이런 동
양적인 신비의 분위기와 정서가
서양인들 사이에서는 항상 켈
트적인 혹은 매니아적인 인기
를 얻는다. 그들 입장에서는 낯
설게 느껴지는 중국 식의 영적
세계에 대한 표상이 자신들에
게 익숙한 기독교적 영혼이해나
내세관에 비해 훨씬 매력적으
로 다가오는 듯하다.

<메이의 새빨간 비밀>에서 엿
볼 수 있는 중국의 전통적인 영
혼론은 고유하고 특이하다. 중국
의 영혼 이해를 가장 오래 좌우
했던 사상은 도교사상이다.

불교도 오랜 세월 중국의 영혼
론 형성에 영향을 주었지만, 엄
밀히 따지면, 불교는 네팔에서
발흥하고 인도에서 크게 확산된
외래종교이다. 반면 도교는 중국
전통의 사상으로부터 유래되었
다. 노자와 장자의 도가 사상이
종교로 변모한 것이 도교이다.

중국의 전통적인 영혼 이해
는 도교의 가르침을 기본으로
삼는 가운데, 불교나 무속의 가
르침을 이리저리 가미한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후에 성리학으로
집대성된 유교 역시 기본적으로
영혼이나 내세에 관한 가르침에
있어서는 중국의 전통적인 조상
숭배 사상과 도교의 음양이론을
기본 바탕으로 삼는다.

도교의 존재론은 기(氣) 사
상을 바탕으로 성립되어 있다. 자
연 만물은 모두가 태극과 음양
의 원리에 따라 운행하는 기의
변형태로 여겨진다. 기는 감각
될 수 있는 물질 형태로도 존재
할 수 있고, 물질의 형태가 없는
순수한 기의 상태로도 존재할
수 있다.

도교에서 보는 인간의 존재 또
한 기 사상을 바탕으로 설명된
다. 인간과 동물 모두 육체가 살
아있을 때는 물질적인 몸(體)과
기가 공존하는 상태이지만, 육
체가 죽으면 그 사람의 기운이
소멸될 때까지 순전한 기의 상
태, 즉 영혼의 상태로 존재한
다고 가르친다. 그 기간은 기운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결국에는
혼비백산의 결말을 맞게 된다.

도교는 이런 혼비백산을 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종교이
다. 기의 크기를 늘리고 질을 높
여 육체를 아예 순수한 기와 일
치된 상태로 만드는 것, 그래서
인간을 영원히 존속시키는 힘을
얻는 것이 도교, 그 가운데서 특
히 신선도의 목표이다.

이처럼 만물이 궁극적으로 기
로 이루어져 있고, 살아생전 이
기의 양과 질을 높여야 영생 불멸
할 수 있다는 신선도 사상은 기본
적으로 인간의 몸과 영혼에 다른
기운을 받아들일 것을 권장한다.

특히 조화로운 자연의 기운을
몸에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도 유익한 일이라고 가르친다.
그래서 우화등선을 위해 평생
기운이 충만한 곳에서 그 기운을
받아들이고 잘 다스리는 도행(道
行)을 정진하도록 권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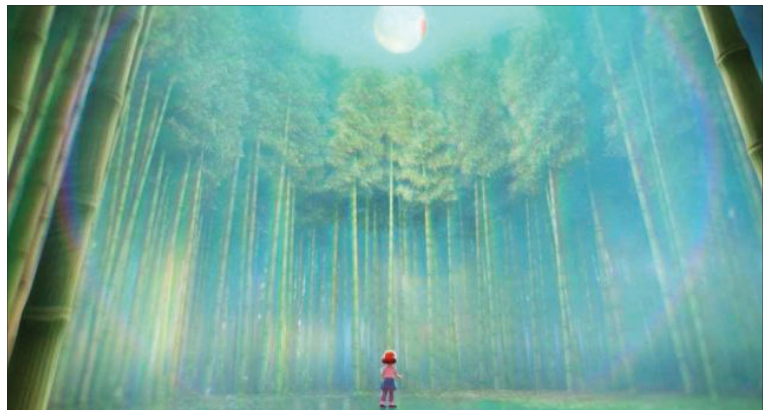
<메이의 새빨간 비밀>에서 메
이의 모계 쪽 선조인 선이 레서
판다의 영혼을 받아들인 것은
자연의 기운과 힘을 받아들여
자신의 존재 능력을 강화하고
지속시키려 하는 신선도 사상이
반영된 설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기운'을 이어받은 선
의 후손들 역시 레서판다로 변
화되는 능력을 갖는다는 설정
또한 도교적이다.

물론 이 애니메이션은 서양인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레서판다로 변한 상태를 매우
귀엽고 코믹하게 그려내고 있지
만, 그 안에 담긴 사상은 중국에
서 유구한 전통을 가진 종교적
영혼론이다. 이는 이 애니메이
션을 연출한 감독의 삶과 무관
하지 않다.

<메이의 새빨간 비밀>을 연
출한 도미 시(Domee Shi) 애니
메이션 감독은 중국 충칭시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 캐나다로
이민을 온 인물이다. 이 작품은
그녀의 성장기를 모티브로 삼은
작품이다. 설정과 서사로 봤을
때, 그녀가 중국 전통 종교문화
와 전설 등에 익숙하다는 사실
을 알 수 있다.

도미 시 감독은 이런 중국 고
유의 종교문화를 콘텐트의 매력
으로 녹여내는 법을 잘 알고 있
다. 그 덕분에 이 작품이 서양인
시청자들에게는 낯선 매력으로,
동양계 혹은 동양인 시청자들
에게는 익숙한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계속>

박옥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
학원 겸임교수)



<메이의 새빨간 비밀>에 등장하는 동양적이고 몽환적인 대나무숲 장면.

OPEN 23주년 기념 세일

리모델링 전문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실내구조 변경

집수리 일체

디자인/설계/시공

- 1~2명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2~3명이 조를 이루어 Crew가 일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 마루시공팀, Kitchen팀, Bathroom팀, Counter Top팀, 페인팅팀, Carpentry팀, 전기팀, Solar팀, Roofing팀, Plumbing팀, Window팀, Concrete팀, Stucco팀, 디자인설계팀 **(하청없이 직영팀으로만 운영합니다.)**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 Solar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 **20% 이상 절약**이 됩니다

“ 23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

방문시 예약해 주세요!

ADU
Second Unit 건축

Water Damage
보수공사




ABUNDANCE DESIGN & CONSTRUCTION

LA (213)500-8000 3400 W Olympic Blvd., #204, L.A, CA 90019 (구, 로랜드 빌딩)

OC (714)294-4336 8251 Roland St., #E, Buena Park, CA 90621

<https://abundancedesignandconstruction.com>



당신의 올스타에게 자신감을 높여주세요.

아이들이 건강한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녀가 5세 이상이라면 COVID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신은 중증 질환을 예방합니다. 또한, 백신 접종은 여러분과 자녀가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더 큰 자신감을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의사에게 문의하세요.

vaccines.gov에서 가까운 백신 접종소를 찾으세요.

함께
아껴냅시다



미국 보건복지부 자금으로 제공됩니다.